

에타게 기다린 상봉

10년전종의 일로 기억된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소련이 붕괴되기 직전이 아니었던가 싶다. 미화 2만달러(당시 약 1천6백만원)만 있으면 신행민이 북한의 가족을 제3국에서 얼마든지 만났다는 소문이 있었다.

작은 이익 따질 때 아니다

그중 신행민 기업가가 인생 10년에 북에 두고 온 처자를 북경에서 만났다. 물론 몇몇 경로와 몇 차례의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북의 가족을 만난 것이다. 한참 신혼살림 재미를 보면서 어린 딸을 기르다가 전쟁을 만나 잠깐 피신했다는 것이 어떤 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흘렀고, 그리고 남편이자 아버지는 70 고희의 나이로 북의 처자를 만나게 된 것이다. 나이가 들 어갈수록 그리움은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켜켜이 쌓인다는 것을 그는 몸소 체험했을 것이다. 특히 남쪽에 서 새가정을 꾸미고 지금은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자식들이 남한 사회에서 사회적 성취를 이룬 대표적인 가정이 되었지만, 그럴수록 그는 가슴이 허해지는 것을 어찌지 못했다.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아가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조선족을 간첩용의자로 경찰에 신고했고, 할아버지 역시 실정법에 저촉되어 불구속기소되었다.

심부름을 해온 조선족 동료는 한국의 보안법이나 반공법에 대한 지식이 있을 리 없고, 할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더군다나 북한의 가족들과 접촉을 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고 이해되는 사안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 사회분위이다. 다만 할아버지가 가족 몰래 돈을 빼내 북의 처자를 도왔다는 것이 그 가족에게 미안하던 미안할 뿐, 따지고 보면 그런 마음씨를 가진 것이 오히려 좋은 덕목으로 비쳐질 수 있는 것이었다. 이제 이런 소모적인 일들이 계속 되는 듯하다. 6·15 남북정상회담과 그 후속조치로 남북 고향방문단의 상호방문은 8·15를 기해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동안 북의 가족을 에타게 찾다가 속이 타버린 이런 비극들은 이제 제도적으로 막아지



이계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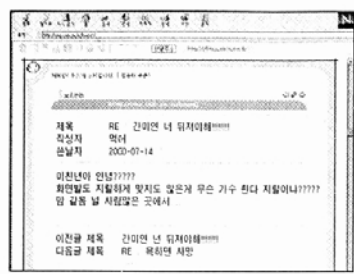
(대한매일 논설위원)

사이버 공간, 말의 쓰레기장인가

욕지거리·황당한 조어 '난무'... "청소년 인터넷언어 위험수위"

19일 인기 가수 그룹 베이비복스 한 멤버의 개인 홈페이지.
"야 이 미친 골반 것들아. 지랄들 한다. 얼굴 뜯어먹고 살아라. 미친년 로즈도 영어로 쓰쓰는 년이 대학을 가? 참 병신 삼질하고 있구나"
"이 배복년들아. 울이 지오디 오빠한테 꼬리치자! 존나 대가리는 커가지고. 얼굴도 쪽가치 생겨가지구 그게 얼얼이나?"
10대들의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이 그룹을 비난하는 네티즌의 욕설은 차라리 '저주'에 가깝다. 다른 팬클럽의 회원들이 무차별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웬만한 인기 연예인이라면 이정도 욕설과 비방을 듣지 않는 사람은 없다.
최근 경기도 한 중학교 학생들이 개설한 대화방.
"우리반 달덩이 그 새발년 젖나 쟤나. 대갈박도 드럽게 큰 게... 그 쪽 같은 열병할

년... 썩 꺼져버려. 이 화냥년아."
인터넷 공간이 무차별적인 언어폭력 공간이 돼가고 있다. 우리 인구의 3분의1 이상인 1400만명이 인터넷 인구가 성장했지만 익명성을 악용한 저질 욕설과 저주의 목소리들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상대방이 누구든 상관하지 않는다. 마음에 안들면 무조건 저주의 대상이 된다.
문제는 또 있다. "안나세요. 넌넌 궁그매요. 갈쳐주세요...생일 축하추추카. 고품 20000 안나주세요."
이것은 암호가 아니다. "안녕하세요. 너무나 궁그매요. 가르쳐 주세요...생일 축하 축하. 그럼 이만 안녕히 계세요"라는 표현이다. 청소년 네티즌들의 대화는 이렇게 황당한 조어와 편법적인 언어들로 채워지고 있다. 심지어는 이런 표현들을 모르면 채팅에서 왕따를 당하기까지 한다. 웬만한 초등학생들도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같은 현상은 바른 언어습관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인터넷이 이처럼 말의 쓰레기장이 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익명성과 비대면성(非對面性)을 주된 이유로 지적한다.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고 상대방 또한 보지 않으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익명성이 원인이다. 물론 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처럼 심각한 수준은 아

니라고 한다. 자발적인 언어정화운동이 인터넷 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잡아함경>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바람을 거슬러 냄새를 풍길 수 있는 향기는 어떤 것이냐"는 아난다의 질문에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다.
"어느 마을에 착한 남자와 여자가 있었다. 그들은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않고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으며, 음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 사람에게서 나는 향기다. 이 향기는 바람을 따라서도 풍기고 거슬러서도 풍기며, 바람이 불거나 불지 않거나 관계없이 풍기는 것이다."
말은 곧 인격이다. "일체중생의 불행은 그 입에서 생가나니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칼이다"는 <법구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자. 인터넷에서 악취를 제거하고 향기를 풍기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
*인터넷 상의 욕설 실태를 고발하는 의미에서 가급적 원문을 그대로 실습니다. 독자들의 양해 바랍니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인災공화국 또... 또... 어이없는 대형사고

부산 부일외고 수확여행 참사는 우리나라가 구제불능의 인재공화국이 아나가를 의심케 한다. 삼동 백화점·성수대교·씨랜드·인천 호프집 참사 등 어이없는 대형사고들을 떠올리면 이 말이 틀리지는 않는 것 같다.
이들 사고는 모두 개인이든 집단이든 사회의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은 데서 발생한 것이다. 아예 목숨을 '팔지소'에 팔려 버리고는 팔대로 되라는 식의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과속에 있기는 하지만 당국의 무신경과 무성의도 사고유발에 일조했다. 워낙 사고가 많은 지역이었을

에도 불구하고 단속카메라조차 설치돼 있지 않았다. 아직도 선진국이 되려면 멀었다는 반증이다. 선진국은 경제적 여유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의식과 이성이 선진사회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이번에 철저히 깨달아야 한다.
이번 사고로 모두 14명의 꽃다운 젊은이들이 뜨거운 불길 속에서 아우성치다 참혹하게 숨져갔다. 그 와중에서도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의 탈출을 돕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했음이 경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어른들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중일아함경>에 다음과 같은 부

처한 말씀이 있다. "어떤 사람도 한쪽의 곳에서 욕심으로 악행을 하다가 문득 부끄러워하고 스스로 뒤늦게 제가 한 일을 남에게 말한다. 마치 까마귀가 더러운 것을 먹고 주둥이를 씻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은 한쪽의 곳에서 스스로 악행을 하고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뒤늦게도 잘못을 뉘우치거나 오히려 뽐내고 자랑하는 것이 마치 돼지가 항상 더러운 것을 먹고 더러운 곳에 누워 있으면서 다른 돼지 앞에서 뽐내는 것과 같으니라."
누우칠 줄 모르는 돼지는 바로 우리 사회, 우리 어른들의 모습이 다.



부산 부일외고 1학년 교실에 추모의 글과 국회가 숨진 학생의 책상위에 올려져 있다.

법 무시하는 사회지도층 '눈총'

이른바 '사회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법을 무시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뒤 국회 회기를 핑계로 재판에 나오지 않거나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됐는데도 1년반이 넘도록 재판을 끌고 있는 국회의원. 건강이 나쁘다는 핑계로 판결선고일에도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전직 기업 총수.

<구잡비유경>에 이런 설화가 있다. 한 구도자가 왕에게 구걸하러 갔다. 마침 사냥을 나가던 왕은 구도자에게 기다리라고 하고는 사냥을 하다가 길을 잃고 귀신을 만나 잡아먹히게 되었다. 그때 왕은 귀신에게 "오늘 아침 한 도인과 만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잠깐 들어가 그를 만나고 온 뒤 너에게 먹히겠다"고 했고, 귀신은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받아들여 왕을 놓

아주었다. 왕은 공중으로 돌아가 도인에게 보시한 뒤 귀신에게 돌아갔고, 귀신은 왕의 신의에 감동해 예로써 사과하고 감히 해치지 못하였다.
사회지도층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사회의 구심점 역할은 물론 숭선수범을 통해 일반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하물며 법을 입안하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왕이 귀신에게 돌아간 것은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법을 준수하고 신의를 지킨다면 국민들도 마땅히 존경하고 따를 것이 다.

래프팅 인파로 '동강 몸살'

동강이 래프팅(급류타기) 인파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다. 현지의 주민들은 흔한 물고기를 구경할 수 없고 물 색깔도 달라졌을만큼 동강이 오염되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물러드는 보트들로 인해 물고기가 아예 수면 근처로 나오지 못하면서 산란은 물론 치어들의 성장 환경이 완전히 파괴되고 있고, 주말이면 물러드는 5천여 관광객들이 버리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결국 사람이 최고의 오염원인 것이다.
"맑고 깨끗한 볼국토를 일거터든 망망하리 마음은 깨끗이 하라. 마음이 맑고 깨끗해짐에 따라 볼국토는 깨끗해지는 것이다"는 <유마경>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때다.

서북 토종 오가피농장

"한중의 오가피는 한마차의 금옥을 갖는 것보다 낫다"
- 본초강목(P 1732)

유기농법에 의한 생명력이 가득한 오가피

KBS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MBC 9시뉴스, 조선일보 등을 통해 수차례 보도되어 화제가 된 오가피 제품을 생산농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판매합니다. 99년 1월 9일자 일간스포츠에 보도("오가피 알아봤더니 송가피")에 따르면 이종범, 선동열, 이봉주 등의 유명 운동 선수들을 비롯한 대표선수 68명이 오가피를 식복하여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높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서북항도 토종오가피 농장에서는 유기농법으로 오가피 5천여그루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산자의 양심을 걸고 정직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 전화문의 및 농장방문을 환영합니다.
☎ 복용사례와 오가피의 효능에 관한 자료도 보내드립니다.
☎ 제품 **오가피추출액, 요목분말**
☎ 전화문의시 전국 택배 배달
☎ 주소: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운정3리 9-5 **서북오가피직판장**
☎ 전화: 0333) 682-5033, 682-4965
☎ FAX: 0333) 682-5034
☎ 인터넷 홈페이지: http://myhome.netsgo.com/baegh/

남여 정토불교 수강생 모집

☐ 기본과정 (3개월)
불교학교리(반야심경, 불교성경)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 법, 도량서, 첫승,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불교예절(교양 상식 계명 연행) 사미유리 초발심 자경의 해설
· 신도5계 독도수계 입실경당 보살계 비구비구니계 해설 및 수계
· 시달림법(말출 위배 작성 독경 염불) 반혼1계~6계 친도 발인 화장 매장
· 49세(시령 대령 관육 지장경 시식 불송 소대)
· 법당 불상 탱화 연단 및 불기구 배치법
· 목탁의 종성 예불기도 축원법 좌선법(간좌선 목조선 선학역사)
· 불공 기도 축원법(삼보동정 관음자장신중 산신 칠성 독성 발원)
· 목탁 요령 죽비 경종 사용법 신중작법 구명시식 관음시식 상요명반
· 화엄시식 종사 명반 점안식 삼재놀이 화순식 원에 따라 수계식 불행
· 불교교리 및 불교 역사 중요교과 발표 강의의 납품 개설 사업 운영등

◆ 모집인원: 27명(선착순) ①교리반 9명 ②사물반 9명 ③포교반 9명
◆ 원서접수: 현재 접수중
◆ 개강일시: 매월 1일 11일 21일 개강
◆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서북정토불교세계 교육도량으로 수료증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도, 포교원(사찰행정)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 승니, 재가, 불교전통의식을 통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월 회비: 백만원(가계(속식제공))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26-27(나드리프라자 4층)
한국불교 정토종 불교대학
전화 032) 543-2693~5

살아있는 法語, 살아있는 佛敎史料

이천만 불자의 참대변지, 수행의 길잡이 ...

현대불교신문 '99년도 합본집 (10부 한정판대)

'94 ~ '99년 디지털 합본집 CD도 함께드립니다.

94년 창간호부터 1999년도 송년호까지 모든 기사와 보도사진이 수록되어 있는 '디지털 합본집 CD-ROM'을 증정합니다.

1999년도 한해 동안 발행된 현대불교신문의 '합본집' 잔여분을 판매합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시사불교와 이해하기 쉬운 교리, 큰스님 법문, 한국문화의 중추가 되는 불교문화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어 불자들에게는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사찰의 스님들께는 참다운 수행의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

수록내용: 1999년도 (201호~251호)
판형: 신문원형 그대로
가 격: 1권 60,000원 (발송비 별도/지역별 실비 - 직접 구입시 발송비 제외)
입금구좌: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023-25-0007-617 농협 053-01-227471 우체국 010041-0255243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고객센터 02)737-0090(直), 02)737-8881(代)